

배포 일시	2023. 2. 25.(토)		
담당 부서	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	책임자	과 장 정천우 (044-201-4100)
		담당자	사무관 이용재 (044-201-3898)
			주무관 이수용 (044-201-3903)
보도일시	2023년 2월 27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26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부산 사상-해운대 민자고속도로 사업추진 본격화

-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에스건설 컨소시엄 지정... 3월 협상 착수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부산 사상-해운대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에스건설 컨소시엄((가칭)사상해운대 고속도로㈜)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사상-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은 부산 서부의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동부의 동해고속도로(부산~울산)를 연결하는 총 길이 22.8km의 손익 공유형 민간투자사업(BTO-a)*으로,
 - * Build Transfer Operate-adjusted :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 만큼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위험을 낮추는 방식
-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부산 사상-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차 제안공고를 실시하였으며, 최초로 해당 사업을 제안한 지에스건설이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하였다.
-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수행능력, 사업계획(가격·기술 등)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,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.
-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.

- 협상 과정에서는 사업비, 운영비 등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증 뿐만 아니라, 대부분 구간이 도심도 지하도로인 만큼 안전 및 이용자 편의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.

-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“이 사업을 통해 국가간선도로망의 한 축인 부산경남권 순환망이 완성되어 해당 지역의 교통 효율성은 물론 이용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” 이라면서,
 - “이 사업을 계기로 부산시의 동서고가도로 일부가 철거되면서 동서고가도로 주변의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” 라고 밝혔다.

